

이미 자유함

| 용타스님 |

수단과 방편에 구애 받지 않는, 지금 여기 이미 자유함에 대해 말합니다(편집자 주).



080. 조사선(祖師禪)의 기초

지금 여기 이 마음이 무한으로 열려, 일체의 걸림에서 벗어난 의식으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돈망(頓忘)을 주제로 꾸준히 글을 써왔다. 불교 속의 조사선을 다소라도 이해한다면 돈망의 삶을 위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안다.

조사선(祖師禪)이란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조사선이란 달마(達磨) 스님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실 때 ‘내가 인도가 아닌 새 땅에 이르면 불교를 새로이 단장(丹粧)해서 펴보리라!’ 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새 불교]이다.

달마는 인도 향지국의 왕자였다. 천품이 출중하게 명석했고 도량의 크기가 바다 같았다. 중이 되어 삼장(三藏)(경율론(經律論))을 두루 통하고 수행의 깊이가 제2의 부처라 할 만큼 높은 경지에 이르러 28대 조사(祖師)로 추대되었다.

불교문화 속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된 달마에게 당시의 불교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많았다. 일단 두 가지부터 바로잡아야 했다. 그 한 가지는 당시 불교가 즐기치게 부르짚는 성불(成佛)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한 가지는 성불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 수행에 긴 세월이 걸려야 한다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달마는 이 마음 이대로가 부처라는 즉심즉불(卽心卽佛)(바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부처인 이 존재가 해탈(解脫)하기 위해서 세월 잡아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탈되어 있으니 해탈되어 있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독자들은 달마의 이 추상같은 선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달마는 ‘새 술은 새 부대에

~~'하면서 새 땅을 찾아 떠났고 그 새 땅이 중국이었다.

이러한 달마의 충고가 새 땅이라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물론 아니었다. 그래서 근기론(根機論)이 나온다. 상근기(上根機), 중근기(中根機), 하근기(下根機). 달마는 한 사람의 상근기 제자, 혜가(慧可)를 만날 때까지 9년을 기다려야 했다.

근기론! 여러분은 근기론을 어느 정도 신봉하는가? 근기론은 부정할 수는 없으나 또한 신봉할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상근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신념과 결단력, 이것이 근기를 결정하는 중대 변인이다.

나는 고등학교 교편생활을 십여 년 했다. 한 읍 단위 고등학교에 봉직할 때의 경험이다. 내가 담임으로 있는 2학년 1반에서 일어난 일이다. 월말고사에서 지속적으로 60명 중에 59 등 아니면 60등을 하고 있는 한 학생. 방과 후 늘 교실에 혼자 남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그러나 시험 때마다 59등 아니면 60등 꼴찌를 지키는 학생. 웃음 없고, 말 없는 아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해도 결과는 꼴찌. 담임인 나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왼팔에 흰 붓대를 감고 있었다. “모모야, 팔에 왜 붓대냐?”라는 나의 질문에 “아무것도 아녜요!” 투명스런 반응. 다른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모르세요? 모모가 아둔한 머리를 한탄하면서 휘발유에 적신 형짚을 팔뚝 위에 얹어 놓고 불을 질렀대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연민으로 울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음 월말고사에 그 학생, 갑자기 40등을 하였다. 다음달, 또 그 다음달, 30등, 20등... 결국 대학에 들어갔다.

나는 그 학생의 상황에서 불교의 한 원리를 다른 각도에서 깨달았다. 마음이 DNA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사상이다. 발심發心이다. 발원發願이다. 즉심즉불即心即佛, 이 마음 이대로 부처란다. 이대로 이미 자유함 속에 있으니 자유함을, 해탈을 살라 한다.

달마는, 아니 선불교는 이처럼 성불成佛주의를 즉불即佛주의로, 점수漸修주의를 돈오즉탈頓悟即脫주의로 대치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양자를 통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성불점수成佛漸修주의로,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즉불즉탈即佛即脫주의로 궤범軌範삼으면 될 것이다.

달마 대사님이 권장하는 삶의 길은 단적이라 할 만큼 두 가지 뿐이라 여기면 된다고 했다. 지금 여기 이대로의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바로 부처로 사는 것이 그 하나요, 이 마음이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 둘이다. 다음 글에서 그 둘 중, 후자 쪽을 조명하면서 조사선에 대해 논의해 본다.

조사선祖師禪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은 일체一切의 개념概念, 일체의 언어言語, 일체의 문자文字의 틀을 벗어버렸을 때의 의식상태이다. 그래서 불립문자不立文字이라고 하고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도 한다. 개념을 뛰어넘고, 언어와 문자를 넘어서는 의식 상태, 이것이 조사선의 완성이다.

불교사를 간단히 조명하면서 조사선의 완성까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불교는 인도 카필라국 정반왕의 태자 싯다르타의 생로병사에 대한 불유쾌不愉快 감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죽음에 대한 불안’이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입산-식발하고 스님이 된 것이다. 석가모니는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시작하여 35세에 스스로의 고뇌가 해결된 다음에 80세로 타계할 때까지 45년

간 세상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였다. 석존시대로부터 10세기가 지난 때가 달마 시대였다. 이 10세기, 1000년 동안 불교사에는 다양한 문물의 축적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경전의 축적이 가장 대표적이었음은 당연하게 짐작할 수 있다.

어떠한 문화의 발전이든 양지陽地만이 아닌, 비판 받아야 하는 족적足跡까지 함께 축적된다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달마 대사의 관점에서 볼 때 석존 이후 천년 쯤 지난 불교 속에는 안타까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지만 특히 불교의 본질 차원에서 중대한 주객전도主客顛倒 현상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것은 ‘삶’과 ‘말씀’ 사이의 주객전도 현상이었다. 삶은 목적目的이요 주主이며, 말씀은 수단手段이요 객客이다.

달마에게는 삶이 걸림 없는 해탈이면 될 뿐이었다. ‘걸림 없는 해탈의 삶’만 확실하다면 ‘진리말씀’은 큰 의미가 없었다. 원래 불교라는 것이 그저 이고득락離苦得樂이면 될 뿐, 그 자리에 꼭 진리말씀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진리말씀이라는 것이 주인이 되고 삶 자체는 객으로 물러나버린 역사적인 불교현실 앞에서 반기를 든 자가 달마였다.

달마 앞에 나타난 수많은 제자들에게 달마는 “불교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는 대신 “지금 여기 마음이 평안平安하냐?”고 물었다.

달마를 초조初祖로 하는 중국의 조사선은 선불교禪佛敎라는 이름이 대표 문화개념이 되었지만, 선불교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단연 조사선이라는 이름이 좋다.

불교역사에서 장르적으로 정리된 다양한 불교 중 조사선祖師禪(禪佛敎)에 이르러 불교는 확실하게 도그마Dogma(불변한 진리주의)로부터 해방되어 지금 여기의 활불교活佛敎(관념불교가 아닌 살아있는 불교, 생활불교,

달마에게는 삶이 걸림 없는 해탈이면 될 뿐이었다
'걸림 없는 해탈의 삶'만 확실하다면
'진리 말씀'은 큰 의미가 없었다

방편불교, 초종교적인 불교)로 진화되었다.

아무튼 조사선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즉심즉불即心即佛, 이 마음 이대로 부처]와 [지금 여기 평안함, 자유함]이다. 다음에 나눌 조사선과 여래선을 대조해보면 그 핵심 뜻이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081. 조사선(祖師禪)과 여래선(如來禪)(의리선(義理禪))

조사선 - 여래선 - 의리선, 이 세 가지 종류의 선禪의 뜻을 선명히 이해함으로 해서 조사선의 뜻은 더욱 확연해질 것이다.

위산(滌山) 스님은 제자인 양산(仰山) 스님과 더불어 뜻을 모아 위양종(滌仰宗)이라는 종파를 만들었다. 양산 스님은 스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선지(禪旨)가 깊으셨다. 양산 스님은 사제(師弟)인 향엄(香嚴) 스님의 선지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속살림이 어떠한냐고 물어보았다. 향엄 스님은 훌륭한 말씀으로 화답했다. 이때 양산 스님이 “사제는 여래선 차원에 있을 뿐 아직 조사선에 이르지 못했네!”라고 대응하셨다.

이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여래보다 조사가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것처럼 들린다. 이로 인해 ‘조사의 경지가 여래의 경지보다 높단 말인가?’하는 저항을 역사적으로 받게 되었다. 오해 차원 말고도 실지로 여래(如來)보다 조사(祖師)가 더 높은 경지라는 인식 지평까지 형성되기도 했다.

만일 양산 자신이 여래보다 조사의 경지가 더 높다고 이해했다고 한

다면 이는 조사선의 역사적인 의미조차 잡지 못한 크나큰 망발이 될 것이다. 이에 양산이 의미했던 조사선과 여래선의 뜻이 선명히 규명되어야 한다.

‘조사선-여래선’이란 ‘조사의 선-여래의 선’이 아니다. 조사선(祖師禪)은, 어떤 조건을 통하여 얻은 선(禪)이든지 선(禪)(결림없는 자유로움)에 이르렀으면, 조건이 되는 방편(方便) 여하와는 상관없이 결론이 되는 결림 없는 자유로움(선(禪))만을 주목하면서 온전한 자유함을 만끽하는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곧 조사선은 과위(果位) 개념이다.

여래선은 결론인 선(禪)(결림없는 자유로움)에 온전히 주목하면서 자유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선(禪)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 조건인, 여래의 가르침에 주목하는 에너지가 아직 방(放)하되지 않고 있는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곧 여래선은 여래의 가르침이라는 인위(因位) 개념과 선(禪)이라는 과위(果位) 개념이 어우러져 있는 개념이다.

피안에 건너갔으면 타고 갔던 뗏목을 완전히 버리고 피안의 초원을 온전히 즐기면 조사선이다. 타고 갔던 뗏목을 버리지 못하고 피안의 초원에서도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면 여래선이다. 향엄은 양산 앞에서 온전한 해탈만을 노래했어야 하는데 해탈에 이르게 한 여래의 가르침까지를 노래했던 것이다.

여래선이 ‘여래의 선’으로 오해되는 상황을 지양(止揚)하기 위해서, 중국과 한국의 선불교는 여래선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는 개념으로 의리선(義理禪)이라는 단어를 개발해 낸다. 이는 물론 단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여래선을 의리선으로 대치시키면 아주 적중된 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양산 스님께서 당초에 “자네는 아직 의리선에 머물러 있는 감이 있단 말일세. 아직 조사선에는 적중하지 못했어!” 식과 같은 표현을 썼더라면 스스로는 물론이요 많은 사람을 그 엄청난 오해의 회오리

바람 속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위果位 개념인 조사선은 그 인위因位가 되는 ‘여래의 가르침’이나 또는 어떤 ‘의리義理’ 등의 유무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온전하게 ‘지금 여기 자유함’에 주목만 한다면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있든 없든, 또는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여래의 가르침이든 혹은 잡다한 인문학 나무 랭이이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면, 먹었던 약은 잊고 그저 건강하게 잘 살기만 한다면 그것이 조사선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회주, 성륜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공,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마음 알기 · 다루기 · 나누기》, 《10분 해탈》 등이 있다.

(재) 행복 마을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저자 송탁 | 출판사 대원사 | 정가 12000원

용타 스님의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마음 닦는 일에 대한 불교 원경의 입문서이자 지침서다. 불교원간지 『대중불교』 등에 실어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행복과 행복의 조건, 생활 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의로의 산책, 명상장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0분 해탈 - 용타 스님의 생활수행 이야기

저자 송탁 | 출판사 불광 | 정가 12000원

생활도 수행이다!

용타 스님의 생활수행 이야기, 『10분 해탈』, 불교의 근본적 가르침뿐 아니라, 선불교관 대명으로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을 끌어들이며 『동사집(同事集)』이라는 집단수행프로그램을 만든 저자의,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대원사, 1997년)에 이은 두 번째 수행 지침서다.

이 책은 불교 원간지 『불광』에 3년간 연재해온 <생활수행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매일 10분의 10분간 읽으면서 해탈을 이두어 금극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동사집 수련프로그램 안내

동사집(同事集)이란, 불교의 사섭법(四攝法 : 布施攝·愛語攝·利行攝·同事攝) 중의 한 개념이다. 사섭법이란 보살이 증생을 향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베풀고(보시섭, 경우에 따라서는 자애 어린 말로 더불고(애어섭), 또는 이로운 일로 도와주고(이행섭), 나이가 그들과 최로애락을 합제하는(동사섭) 살의 태도를 말한다. 본 동사집수련회에서는, 동사섭의 개념을 사섭법 중의 동사섭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애어, 이행을 다 아우르며, 세상에 존재하는 유정 무정의 개체가 낱낱이 우주의 주인공이되 낱낱이 서로 평등하게 어울려져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만 존립할 수 있으니 우주 전체가 한 생명체일 수밖에 없다는 일체(一體) 사상을 뜻매김하여 쓰고 있다.

동사집 수련프로그램은 용타스님이 개발한 마음수련 프로그램이다. 칼 로저스의 엔카운터를 씨앗으로하여 1980년부터 수련하여 왔다. 현재는 <살의 5대 원리-정체(正體)·대원(大願)·수심(修心)·화합(和合)·작선(作善)의 원리>를 학습 주제로 하여, 의식의 전개 과정을 일상의 삶 속에서 지인(至人)의 수준으로 나이가도록 이론과 실습의 체계로 수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과정(5박6일), 중급과정(3박4일), 고급과정(3박4일)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평소에는 홀수 달, 셋째 주 월요일에 개설되어 있다.

홈페이지 : <http://www.dongsasub.org>

연락처 055-962-1070 / 이메일 office@dongsasub.org